

# 닭고기 브랜드 현황

본고는 지난 11월 27일 충남 천안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한 「WTO 시대의 브랜드 축산물 육성을 위한 개량방안 심포지엄」에서 축산기술연구소 김상호 연구사의 「양계산물의 브랜드화 현황 및 전망」 중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 게재한 것이다.

—편집자주

## 1. 실용 육계의 브랜드화

실용육계의 브랜드화는 대부분이 대형 닭고기 계열업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주원인은 규격품 생산과 위생적인 유통이 농가단위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능성 물질을 강화한 브랜드는 몇 종이 있으나 대부분이 자사의 브랜드를 통닭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 닭고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홍순(2002)의 조사에서 소비자의 닭고기 구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위생과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형태는 생닭을 구입하여 요리한 것보다 후라이드 형태가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오승용과 유익종, 2001), 가공품에 대한 브랜드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김종원과 이영현(2001)의 닭고기 가공식품의 구매기준 조사에서 브랜드에 의한 구매 기준은 아직까지 낮게 나타나 다른 품목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공육의 경우 가슴과 다리고기의 부분육 가공품과 봉 등의 다른 부위도 상품으로 개발되어지는 등 과거 통닭위주에서 점차 차별화 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품질향상을 통한 깨끗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삼계를 제외한 닭고기는 1.5kg 정도로 동일하게 사육되고 있는데, 사육기간이 연장될수록 우리 국민의 식습성에 적합한 닭고기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브랜드 개발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